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19〉 광주 어린이 도서관 '꿈시루'

'독서 갈증' 해소하는 즐거운 문화 쉼터

광주서구문화센터에 자리잡은 어린이도서관 '꿈시루'는 지역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서관 중 하나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여름방학 동안 도서관은 책 읽는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개학을 하고 난 후 조금 한산해지기는 했지만 엄마와 함께 온 유아들이나, 아이들에게 읽힐 책을 빌리러온 엄마들의 방문으로 여전히 인기다. 방학 동안에는 하루 이용객이 150~200여명 정도였고, 보통 때도 80~90명의 아이들이 찾고 있다.

광주 서구 공공도서관과 위탁을 맡고 있는 광주 YMCA가 운영하는 '꿈시루'는 지난 2007년 문을 열었다

'꿈시루'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꾸준히 읽히고 싶다는 어른들의 바람으로 출발했다.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당초 전자도서열람실로 활용돼던 약112㎡(약34평) 공간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몄다. 기존 종합열람실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을 한 데 모으고, 출판사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서 기증도 받았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에는 서구공공도서관, 광주 YMCA와 함께 도서관 어머니 회원과 독서모임 '책향', 서구문화센터 동화나눔이 1~5기 회원들,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도서관 자원봉사모임 등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탰다.

개관을 준비하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 이들은 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가게를 열고 기업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꿈시루에서는 매주 수요일 지역 유치원들의 신청을 받아 도서관 이용법 등을 알려주고 종이접기, 동화구연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약 1만여권. 광주시 서구청에서 책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 도서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현재 꿈시루는 전담 직원과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 퇴직한 노인들과 엄마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책 정리, 아이들 독서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꿈시루' 운영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토·일요일 오후 3시~6시)까지며 1·3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한번에 2권씩 1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꿈시루'는 지난해 2호점을 오픈하며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건너편에 위치한 (사)이주여성복지회에 문을 연 '꿈시루' 2호점에는 현재 시민들과 출판사 등이 기증한 1천여권의 책이 갖춰져 있다. 꿈시루 2호점에 비치된 어린이 책들은 우리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이주 여성들에게는 귀한 교육 자료이기도 하다.

2일 광주서구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 '꿈시루'에서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 읽는 아이들 위한 전용공간…도서관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올해 3호점 개설 예정…북스타트 운동·도서 기증 사업 전개

올해 안에 3호점을 개설할 예정인 '꿈시루'는 현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도서 기증 사업을 전개중이다.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하루 4시간씩 책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염광옥(73)씨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봉사 한 적 있는데 꿈시루는 이용객이 정말 많아 새책도 금방 헌책이 되어 버린다"며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을까 물어보기도 하는데 열심히 책 읽는 아이들이 참 귀엽다"고 말했다.

'꿈시루' 개관에 적극 나섰던 이들은 광주의 책 읽는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북스타트 광주'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북스타트'는 아기 때부터 책 읽은 습관을 길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으로 지난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책은 광주의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북스타트 광주'는 영유아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중이다.

하지만 전담 인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북스타트 광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벤트성 행사만 열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다.

올해 상반기에는 '북스타트 광주' 프로그램으로 도서 기증 및 북스타트 가방 배부, 2008년 권장 도서 목록 배포, 책사랑 가족상 시상식, '책이 있는 집 아이들이 달라졌어요'(김정희 저) 저자 초청 특강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9월에는 '북스타트 광주'와 관련된 두 가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3~26일에는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한의사 엄마의 총명 밥상'의 저자 김혜남씨 초청 강연이 열리며 오는 27일 오전 11시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꿈시루 동화나라' 행사를 갖는다.

'꿈시루' 담당자 김현옥씨는 "현재 '꿈시루' 3호점과 관련, 약 400권의 도서가 모아진 상태로 좀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 스타트 광주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54-4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주문예회관, '문화 나눔' 실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소외 계층 초청한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 공연으로 마련한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를 통해 문화 나눔을 실천한다.

문예회관은 광주문화예술위원회가(이하 문진위) 진행하는 '문화 바우처' 등과 프로그램과 연계, 소외 계층을 초청,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6일과 7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늙은 부부 이야기'는 황혼녘에 이른 두 노인이 새로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이순재·양택조 등 유명 배우들이 거쳐갔다. 광주 공연에는 '옥이 이모' 등에 출연한 정종준과 드라마 '인어아가씨', '너는 내 운명'의 사미자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예회관은 문화바우처 회원에게 175장,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170장의 티켓을 배부, 관객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문화바우처 회원은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artstour.or.kr)를 통해 3일까지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진위는 또 지난 7월부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선'을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으로 확정, 신청자를 받고 있다. 3개월 동안 매달 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 가격(1만원~1천원)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작은 '오레티아를 납치하는 보레아스' 등 루벤스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 75점이다. 그밖에 9월말에는 롯데시네마와 프리머스 영화 티켓 신청자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문의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